제 177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재조귀환자의 "후루사토"(故鄕)와 기억의 정치학
강연자: 차은정(車恩姃)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차은정 강사의 세미나가 10월 28일 국제대학원 107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재조귀환자의 "후루사토" (故鄕)와 기억의 정치학' 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재조귀환자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1945년 일본제국의 패전에 의해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을 가리킨다. 차은정 강사가 '재조일본인' 혹은 '재조선일본인' 대신 재조귀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기억과 실천이 식민지의 일본인이 아니라 패전국가 일본의 "히키아게샤"(引揚者)의 그것으로 분석되며, 그들의 귀환은 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이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차은정 강사는 본 발표문이 2014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결론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식민지시기에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논문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경성(지금의 서울)에서 태어난 분들을 주로 만났고 그 당시 소학교와 중학교, 사범학교, 공업학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까지 총 경성에 있는 50여개의 학교 중 남아있는 동창회 중 '개나리회' 라는 경성에 있는 16개의 소학교의 연합 동창회의 활동, 지금은 해산된 경성중학교 졸업생들의 작은 모임, 규슈와 돗토리, 니이가타 지역의 경성제국의 모임 등을 살펴보며 집단적 기억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차은정 강사가 밝히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자 가설은 바로 조선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하는 재조귀환자의 실천이 제국-식민지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그들 자신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재생하려는 회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풍물과 습속으로 구성되는 노스탤지어의 경험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노스탤지어를 과거로의 복구를 갈구하는 감정적 회로에서 나아가 현재와 교섭하려는 실천적 기제로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노스탤지어의 관점에서 조선의 경험세계를 "후루사토"로 형상화 하는 그들의 실천은 전후 일본과의 이질적인 감각과 맞닿아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전후 일본사회에서 '외지' 일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차은정 강사는 재조귀환자가 '외지', 곧 '조선'의 풍물과 습속을 자신의 경험적 특질로 삼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어떠한 집단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말해왔던 것이며 식민지적 훈육의 경험에서 자신과 '조선'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설정하고 그 관계를 전후에도 지속하고자 하는 한편으로 '조선적인 것'의 습득의 경험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전후 일본의 국민적 동일성에서 '외지'의 일본인으로 구획되는 대신 자신의 고유한 경험적 특질을 잃지 않으려는 그들의 실천적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과 잘 지냈다' 고 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귀국직후 일본에서 겪은 '살기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조선'의 "고마운 경험"은 "히키아게샤"의 서사의 외피를 두르고 현재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조직하는 문화적 동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인'의 국민적 동일성의 담론공간에서 배제된 식민지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서사는 기억의 가장 근저로 파고들어가 "고마운 경험"으로 진을 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체험'에

지지되는 “후루사토”의 서사이며, ‘조선적인 것’으로 형상화되는 “후루사토”의 관념이다. 재조귀환자의 “후루사토”는 순식간에 그들의 눈빛을 “순진무구하게”만드는 실천적 서사로서 ‘조선’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들은 후루사토의 문화적 실천의 일환으로 한국방문 활동을 전개해왔다.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을 기점으로 재조귀환자의 동창회가 한국방문과 한일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것은 “후루사토”의 일상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조선’은 식민지의 조선이며, 기억에서만 존재하는 ‘조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루사토가 조선의 풍물과 습속을 식민지적 맥락에서 떼어내었다 해도 한국과의 대면의 장에서 식민지적 역사인식을 요청 받는다.

재조귀환자는 전후의 한국방문을 통해 자신의 의식과 태도 등이 제국-식민지 체제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전후 일본의 후루사토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한국에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루사토를 한국에 구현하고자 한 재조귀환자의 실천은 국민국가의 경계에 가로막히고 만다. 타국이 되어버린 ‘조선’에서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은 타자이며, ‘조선’은 타자의 후루사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재조귀환자의 ‘조선’은 “마음의 후루사토”로 되돌아온다.

이처럼 재조귀환자의 후루사토의 실천이 갖는 시간적 역순(과거 식민지의 기억을 현재의 국민국가에 구현하려는)과 공간적 역립(제국일본의 ‘조선’을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 정립하려는)은 전후 일본에서 제국-식민지의 경험이 어떻게 기억의 정치학이 교착되는지를 보여준다.

질의응답

질문: 히키아게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키나와 사례를 보면 오키나와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식인, 기술자, 관료층이라 미 군정 아래에서 상류층으로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게 된다. 기억의 정치학으로 보면은 너무 감성적인 차원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어떻게 히키아게샤들이 일본 내에서 다시 편입되었는지 조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사회구조적 연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외부에 나갔던 히키아게샤가 다시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간다. 하지만 재조귀환자의 경우는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는다. 또한 이에 제도 때문에 장남보다는 차남 등이 밖으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등이다. 오사카 센민뉴타운 같은 신도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타난다. 대부분 차남, 삼남들이 아파트촌에 살고 근처에 공동묘지를 짓는데 도시화도 할 때 뉴타운사람들이 재조귀환자들과 같이 그곳을 자신의 고향을 만들게 된다.

답변: 오키나와와 본토연구를 같이 비교연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와서 미군과 함께 협력하였다. 재조귀환자 같은 경우는 미군이 해외에 있는 일본인재산 처리문제를 다룰 때 해외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엘리트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소수를 제외하고, 미군에 의해서 제국주의를 척결하는 것의 일환으로 재조귀환자들이 오히려 핍박 받았다. 또 하나 제시하셨던 부분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재조귀환자가 어떻게 일본에 편입되었냐 하는 점인데 히키아게샤에게 있어서 부모의 출신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바로 나오는 편이며 근처의 대도시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고향과의 교류를 일체 하지 않고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고향의 작동방식은 일본인의 고향에 대한 작동방식과 다르지만 관념은 비슷한 것 같다.

질문: 역사전공자로서 컨텐츠에 납득할만한 무엇을 가지고 증명했는가를 더 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웠다. 모임이나 회보나 활동은 보여주셨지만 현재적으로 어떤 것이 문화적 동력인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컨텐츠 부분을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히키아게샤가 몇 명 정도이고, 현재 이분들의 자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재조일본인으로서 경험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궁금하다.

답변: 조선에서 왔던 히키아게샤는 100만명 정도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분들이 주로 산 곳이 경성,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이다. 경성이 30% 정도이다. 그 이후 정치세력화 내지는 인구구성에서 주목할만한 조직으로 부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소설가 유와사 카츠에, 호즈미 신로코로, 이지미 세이치로 (조선, 북한에 있었던 일본인구출 활동 등을 함), 카지무라 히데유키, 미야타 세츠코 (조선총독부에서 녹취록, 60-70년대 좌익적 식민지 연구가) 등이 있는 것 같다.

질문: 재조일본인 중에서 대중적으로 히트를 친 사람이 누군가? 실제 사실과 재구성된 기억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구별하는데 골치 아픈 사례가 있나?

답변: 선린상고 출신인데 일본으로 간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있다. 일본현지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현재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인터뷰를 하면 재조귀환자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재구성된 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문헌자료에 있는 것만 사실로 보고 나머지는 사실로 보지 않는다.

질문: 서울출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이는데 평양이나 신의주 출신의 사람들의 사례는 없나? 혹시 인식의 차이점이 있는가? 국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아랫사람을 배풀고 싶다는 마음이 있진 않을까?

답변: 전라남도 출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경성출신과의 차이점이 발견됨 왜냐하면 시골출신 분들이시니까. 시골에서는 일본인 분들이 없고 주변에 다 가난한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 군산, 대구와는 그다지 차이점을 볼 수 없었다. 도시의 생활패턴은 비슷한 것 같다. 함흥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변화상을 통해 북한을 느낀다. 간혹 중국을 통해 북한을 가기도 하시고, 최근 재조일본인 구술론을 읽었는데 그분의 내용이 바로 극우출판사에서 나왔듯 제국주의적 시간으로 한국을 본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읽었던 책의 저자 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 갔다.

질문: 자연, 소리를 제일 먼저 재조귀환자들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연구자의 질문이 그런식으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일본의 식민지의 사회상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면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답변: 그래서 동창회지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다. 인터뷰를 가지고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동창회지를 바탕으로 논문을 구성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일본에 왔는지는 총독부와 신문에 발자취

가 다 있다.

질문: 실제로 동창회라는 것이 참석률이 극도로 낮은데 방법론적으로 히키아게샤의 질적 연구가 엄밀 하게 말하면 되지 못한 것 같다. 결론부분에 보면 집단적 가설이나 추측을 하셨는데 동창회를 통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창회가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동창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나쁜 이야기는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논문에서도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답변: 자료가 가지는 한계에는 공감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나이드신 분들의 동창회이며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퇴직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다. 동창회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는다. 싸우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